

Diversitas

Diversitas

Libertas

Justitia

Veritas

et

Diversitas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Korea University Diversity Council

사회 혁신이란 나무는 다양성을 먹고 자란다:
내 안의 다양성, 내 밖의 다양성

이혜영 아쇼카(Ashoka) 한국 법인 대표

엘리트 중심 의사결정의
한계와 다양성의 필요성:
교육 복지 생태계를 중심으로

이의현 교육 소셜 벤처 점프 설립자 겸 대표

사회 혁신이란 나무는
다양성을 먹고 자란다:
내 안의 다양성, 내 밖의 다양성

이혜영

아쇼카(Ashoka) 한국 법인 대표

이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 2021년 12월은 개인적으로 의미가 큰 시기이다. 대학 캠퍼스를 떠나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꼭 20주년이 되는 달이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 북한 인권 NGO 소속 활동, 중국 내 탈북 여성 인신매매 실태 조사 활동, 동북아시아를 위한 비영리 인권 단체 설립, 그리고 지난 9년간 일해 온 글로벌 비영리 조직 아쇼카(Ashoka: Innovators for the Public)로 이어지는 여정 속에서, 나에게 북극성이 되어 준 것은 확실히 ‘사회 혁신’이었다. 사회 혁신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들에는 꽤 자신 있게 답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그런데 이번에 이 글을 쓰기 위해 ‘다양성’의 관점에서 사회 혁신을 바라보려고 하니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 알 것 같기도 하지만, 실상 그동안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거꾸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았다. 나에게 ‘다양성’이란 어떤 의미였고 경험이었길래 세상의 많은 길들 중에서도 ‘사회 혁신’에

매료되고 지금도 그 길 위에 서 있게 된 것일까 하고 말이다.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다양성’을 정의할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어쩌면 지극히 보편적인 단서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 성인기, 이제 중년에 들어선 내가 되기까지, ‘다양성’에 대해 내가 인지하고 느끼고 기억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되짚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글의 1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이 나로 하여금 ‘사회 혁신’과 ‘다양성’이란 주제에 대해 끊임없는 호기심을 갖게 만들었는지를 되돌아보고, 2부에서는 그 호기심을 채워 주고 나아가 지금도 나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고 있는 사회 혁신가들의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1부: 내 안에 축적된 다양성의 기억과 감각들

그 모든 다양성의 시작-탄생과 가정

나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한 가지 표현이 있다면 ‘5남매’일 것이다. 내가 태어난 70년대 중후반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가 공식 모토였다고 하니, 5남매라면 당시에 이미 매우 이례적인 숫자였다. 이유가 없지는 않았다. 종손 집안의 2대 독자이셨던 나의 아버지가 결혼식 전날 함에다 아이 5명의 이름을 넣어 오셨다고 했다. 그렇게 나는 만 나이 다섯 살이 되기도 전에 3명의 어린 동생을 보았고 그걸로 끝인 줄 알았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다섯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에 어린이답지 않게 한숨을 내쉬는 기억이 있다. 그렇게 아주 어린 나이부터 생명의 탄생과 인간의 가장 연약한 시기(영유아기)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것이 나의 무의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아직도 스스로 탐구 중이다. 하지만 그 후 네 명의 동생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성장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다. 바로 아무리 같은 부모의 DNA를

물려받고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자매지간이라도 인간은 서로 아주 다른 존재라는 것이다.

그렇게 서로 다른 욕구와 개성을 가진 존재들이 동일한 부모님의 애정·관심·시간·재원 같은 제한된 자원을 나눠 갖기 위해 벌이는 눈에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투쟁’ 속에서, 어쩌면 자연스럽게 인생의 첫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 때로는 심각한 상처를 입기도 했다. 거기다 우리 집의 특수 상황으로, 부모님 간 그리고 할머니와 어머니 간의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우리 5남매는 성장 과정 내내 불화와 긴장, 때론 폭력을 고스란히 겪어 내야 했다. 부모님은 물론 형제자매들 각자의 개성과 약점들이 거칠게 부딪칠 때마다 몹시 아팠고, 도망가고 싶기도 했다. 한편 180도 상반된 세계관의 존재와 그로 인한 갈등의 존재가 초깃값이었던 나의 어린 시절은 아이러니하게도 ‘다양성’을 향한 나의 갈망의 불씨가 되었다.

홍콩에서 만난 다양한 맛, 언어, 인종

그다음으로 내가 기억하는 내 인생의 ‘다양성’의 시기는 홍콩에서 펼쳐진다. 중학교를 막 졸업할 무렵, 은행에 다니셨던 아버지가 홍콩으로 발령이 난 것이다. 그렇게 나와 우리 가족은 1992년부터 약 3년간 ‘동양의

진주'라 불리던 홍콩에 살게 되었다. 그 전까지의 다소 위축된 삶으로부터의 변화였고 해방이었다. 10대 후반의 감수성 예민한 시절을 홍콩에서 지내면서 나는 그 전에는 느껴 보지 못한 수많은 감각들에 열리게 되었다. 가장 먼저 나를 사로잡은 것은 홍콩에서 처음 보거나 맛본 많은 과일과 음식들의 다양성이었다. 당시 한국에서는 몸이 아플 때나 한번 먹어 볼까 말까 한 과일 '바나나'가 홍콩에서는 가장 싸고 맛도 맛있는 과일에 속했다. 도깨비방망이처럼 울퉁불퉁하게 못생겼는데 냄새와 질감은 독보적인 고급 과일 '두리안'이나 과일의 여왕이라 불리는 벨벳 느낌의 '망고'를 처음 맛보고 느낀 황홀감은 아직도 내 입속 미뢰들이 그때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

물론 홍콩에서의 새로운 삶이 달콤함만 선사한 것은 아니었다. 그야말로 '문화 충격'도 컸다. 내가 마주친 문화 충격은 크게 두 가지 축이었다. 하나는, 난생처음 접해 본 인종차별이라는 현실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주 노동자의 현실을 마주한 것이었다. 물론 당시 나는 고등학생으로서 주로 '국제학교'라는 이름의 잘 정비된 시스템 안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노골적인 인종차별을 경험한 적은 없다. 하지만 캐나다 국제학교와 영국 국제학교 두 곳을 연이어 다니면서, 서양인과 동양인, 백인과 유색

인종, 심지어 같은 유색인종들 사이에도 출신 국가나 지역에 따라 미묘한 우열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캐나다 국제학교에서는 그나마 수적으로 앞선 동양의 여러 나라 친구들-일본, 인도네시아, 대만, 인도 등-간에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좋았다. 다들 외국에 나온 지 오래지 않아 영어도 서툴고 새로운 문화에도 적응해야 하는 같은 처지라 그랬을까. 비슷한 취약성을 가졌다는 사실이 언어 장벽이나 기존의 편견을 뛰어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도 이 무렵 알게 된 것 같다.

그 후 나는 객관적으로는 더 높은 평가를 받는 학교인 영국 국제학교로 옮겨 갔다. 그곳은 부모를 따라 미국이나 유럽에서 홍콩으로 온 백인 학생들이 주를 이루는 학교였다. 초반에 적응이 쉽지 않았던 나는 아주 가끔 쉬는 시간에 혼자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다 보고도 몇 분씩 더 있다가 나오기도 했다. 얼마 후 말레이시아계 중국인 친구와 단짝이 되어 함께 교내 필드하키 팀에 가입해 활동하는 등 즐겁게 생활했지만, 학교 자체에서 느껴지는 인종 간 분리된 느낌은 늘 나를 긴장하게 했고 불편함을 느끼게 했다. 점심시간에도 백인 아이들과 동양 아이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는 테이블은 따로 정해진 듯한 모양새였다. 주말이면 부유층이 모여 사는 홍콩섬 해변가에서 파티가 자주 열리는 것 같았지

만, 동양 아이들 중 그런 파티에 가는 아이는 매우 드물었다.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감지할 수 있는 경계가 존재했던 것이다.

‘멜팅 팟(melting pot)’의 빛과 그림자

출신 국가나 인종에 따른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사실 학교 안에서 보다 바깥세상에서 더욱 확연히 눈에 보였다. 바로 홍콩에 와 있던 수많은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 노동자들의 모습에서였다. 당시 홍콩은 경제·문화적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고, 전 세계 곳곳의 유망 기업과 사업가들이 비즈니스 기회를 보고 모여드는 그야말로 동양의 ‘멜팅 팟(melting pot)’ 같은 곳이었다. 그와 동시에 자신의 육체적 노동력으로 돈을 벌기 위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홍콩으로 대거 몰렸는데, 필리핀·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었다. 남성들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여성들이었고 주로 가사 노동자로서 일자리를 찾아 왔다. 알고 보니, 당시 홍콩의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는 아예 가사 노동자가 잠을 자는 작은 방이 하나씩 따로 있었다. 한국에 살 때 파출부란 이름으로 가사 일을 돕는 직업이 있다는 건 알았고, TV 드라마에서 부잣집으로 출퇴근하는 ‘아줌마’ 역할을 본 적은 있지만, 거의 모든 가정집에 가

사 노동자가 있고 아파트 설계 구조에서부터 아예 가사 노동자가 잠만 자는 단칸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나로서는 처음 보고 듣는 일이었다. 마치 홍콩의 모든 집의 방마다 에어컨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고 놀란 것과 비슷했다.

더욱 놀랄 일은 매주 일요일에 벌어졌다. 그때까지도 주 6일 근무였고, 일요일이 유일한 휴일이었다. 그런데 일요일에 홍콩의 도심이나 큰 길가에 나가 보면, 곳곳의 인도와 일부 차도를 점한 수백, 수천 명으로까지 보이는 사람들이 군중을 이루고 앉아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 모습을 늘 볼 수 있었다. 바로 자신들의 고용주 가족이 모두 쉬는 날인 일요일에는, 그들도 쉴 수는 있지만 고용주의 집을 떠나 길바닥으로 나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평소엔 누군가의 더 편안한 삶을 위해 종일 쫓고 닦고 음식을 만들고 남의 아이들을 돌보던 사람들이, 그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지붕 없는 곳에서 한 주일 가운데 유일한 휴일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뭔가 부당하게 느껴졌다. 그래도 그들의 표정은 대부분 밝았던 것이 인상 깊었다. 아마 자리는 불편해도 마음은 편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백인 친구들이 다수인 학교에서 마음이 편치 않았던 시간을 떠올리며. 그리고 또 알게 되었다. 그런

이주 노동자들 대다수가 자신이 번 돈의 상당 부분을 남은 가족이 어렵게 살고 있는 필리핀 등 해외의 본국으로 송금하고 있다는 사실과 적잖은 여성 가사 노동자들이 고용주의 학대나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그래서 타인의 삶을 쉽게 비극이나 희극으로 규정지을 수 없음을 그때 그분들을 통해서 배웠다.

나를 울린 소설 속 다양성의 주인공들

홍콩에서 보낸 학창 시절의 경험 중 ‘다양성’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캐나다 국제학교의 문학 수업에서 읽은 두 권의 소설책이다. 어느 정도 영어를 따라갈 수 있게 된 시점이라 다행히 원서로도 무리 없이 읽었는데, 픽션이라는 상상의 세계가 때로는 현실 세계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그 시절에 알게 된 건 행운이었다. 그 두 권의 책 제목은 『앵무새 죽이기(To Kill a Mockingbird)』와 『알제논을 위한 꽃다발(Flowers for Algernon)』이다. 그땐 전혀 몰랐지만, 『앵무새 죽이기』는 미국의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소설이다. 2018년의 PBS(Public Broadcasting Service) 조사 결과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오죽하면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퇴임 연설에서도 언급

이 되었겠는가. 이 소설은 미국 남부 앨라배마주에서 일어난 흑인 변호 사건을 통해, 인종차별 문제를 정면에서 다루고 있다. 특이한 점은 소설의 화자가 백인 변호사의 어린 딸이었다는 것이다. 그 어린 딸이 학교에서 급우와 갈등 상황에 처하자, 아버지인 애티커스(Atticus) 변호사는 다정스럽게 이런 말을 해 준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지 않고는 그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 그 사람의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지.”라고. 딸에게 그 말을 하면서, 그는 동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인가를 되뇌이며 속으로 울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의 피부 속으로 들어가 보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피부색의 차이만으로도 진실과 거짓, 생과 사가 갈리는 냉혹한 현실과의 고된 싸움의 한복판에 있었던 그였기에.

두 번째 소설 『알제논을 위한 꽃다발』은 『앵무새 죽이기』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내게는 소설을 읽다가 눈물을 쏟은 첫 경험을 준 특별한 소설이다. 미국 작가 대니얼 키스(Daniel Keyes)가 쓴 SF 소설로, 지적 장애 있는 찰리가 주인공이다. ‘저능아’라 불리던 찰리의 지능이 실험적 뇌수술을 통해 천재 수준으로 높아졌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원래의 낮은 지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느끼는 관계의 변화와 비애를 1인

칭 시점에서 생생하게 서술한 소설이다. 소설 제목의 ‘알제논’은 찰리가 받은 동일한 뇌 수술을 먼저 받았던 실험용 쥐의 이름이다. 알제논을 통해 자신이 맞이할 최후를 미리 알게 된 찰리의 마음. 그 마음을 읽어 버린 나는, 이 소설을 읽기 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었다. 모든 사람에게는 IQ로 대표되는 지능뿐 아니라, 마음이란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알아 버렸기 때문이다.

다양성 부재의 폐해를 목격하다

그렇게 내 삶의 무대는 홍콩을 지나 다시 한국 서울로 옮겨왔다. 고대하던 대학 생활의 시작이었다. 영문학과라는 원하는 학과에 입학했지만, 다른 고민이 생겼다. 소속된 학과에 소속감을 느끼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얼마 전까지 해외에서 살다가 특별 전형으로 입학한 ‘정원 외’라는 꼬리표가 어쩔 수 없이 심리적 장벽을 만든 탓도 있겠지만, 나에게 특히 낯설고 어려웠던 것은 같은 학과 동기들 중 대다수가 몇몇 유명한 외국 어 고등학교 출신들로 채워져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부터 같은 동네, 같은 학교, 같은 학원을 다니다가 대학까지 같은 곳으로 온 친구들도 적지 않아 보였다. 결국 나는 신입생 2학기때부터는 교

내 학보사 중 하나인 영자 신문에 수습기자로 들어가 나의 활동 거점을 바꾸었다. 영자 신문사에서는 확실히 다양한 전공과 배경을 가진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한 달에 한 번 잡지 형태의 신문을 만든다는 공통 목표하에 농업경제학과, 법학과, 신문방송학과, 심리학과, 컴퓨터공학과, 역사교육과, 수학과 등등 다양한 전공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부대끼고 협업하는 일이 나에게서는 잘 맞고 즐거웠다.

영자 신문사 활동에 전념하느라 학과 동기들과는 대부분 눈인사만 하는 사이가 되고 말았지만, 그중에서도 두세 명과는 계속 인연을 이어갔고 서로의 안부와 근황을 챙기곤 했다. 그러다 졸업을 앞둔 4학년 때, 그중 한 친구가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다. 병명은 누가 봐도 거식증이었다.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에 나와 준 그 친구는 근황을 묻는 나에게 자신은 항공사 스튜어디스가 되기 위한 학원에 다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살을 더 빼야 하는데 고민이라고 했다. 그 순간, 대학교 1학년 시절 초반에 그 친구가 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자신은 외국어 고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심했고, 자기 주변에는 공부도 잘하고, 집도 잘살고, 거기다 외모까지 완벽한 친구들이 아주 많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명문대 인기학과에 입학하

긴 했지만, 자신보다 더 좋은 대학이나 학과에 입학한 옛 친구들을 생각하면 자신은 별 볼일 없는 존재로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4학년 어느 봄날의 그 애처로운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되었다. 이듬해 겨울 졸업식을 앞두고 그 친구는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획일화된 입시 위주의 교육, 부모와의 관계 등등 원인을 찾자면 한 가지가 아닐 것이다. 나는 그 친구가 왜곡된 거울로 오랫동안 자신을 바라봤던 게 아닐까 생각한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접촉을 통해 내가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보다 균형 있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면, 그 친구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연령 다양성이라는 뜻밖의 선물

이제 내 삶의 무대를 학생이 아닌 직업을 가진 사회인이 된 이후로 이동해 보고자 한다. 이 시기에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다양성’의 요소는 무엇보다 나이의 다양성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첫 직장으로 ‘북한인권 시민연합’이라는 비영리단체에 들어갔는데, 이 단체에서 활동하는 2년 동안 무려 인생의 귀인 세 명을 만났다. 한 분은 그 단체의 설립자이자 이사장으로 당시 70대 중반이셨는데, 말하자면 내 인생의 첫 보스가 70대였던 것이다. 또 다른 한 분은 이 단체와 협력 관계에 있는 베테랑 국제 인권 전문가인 미국인이었는데, 그분도 나와 함께 호흡을 맞춰 일을 시작할 당시 60세에 가까운, 역시 시니어이셨다. 20대 중반이었던 내가 70대 중반 그리고 60대 초반 나이의 분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일을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쉽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분야에서 수십 년간의 경험과 내공을 쌓아 온 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나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그분들의 판단과 의사결정, 태도, 눈빛 하나하나에서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 나의 70대 보스로부터는 전략적 사고를 한다는 것과 국제적 스케일과 감각을 배웠고, 나의 60대 미 국인 파트너로부터는 노련한 인터뷰 방법과 삶을 즐길 줄 아는 여유를

배웠다. 나 역시 언젠가는 그분들의 나이가 될 것이고, 그때 과거의 나 같은 또 다른 젊은이에게 그분들이 내게 해 준 역할을 비슷하게라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세 번째 귀인은 앞에서 소개한 분들과는 정반대로,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다. 어느 날 미국에 사는 인턴십 지원자가 북한인권시민연합으로 이메일을 보내 왔다. 그 지원자에 대해 좀 더 알고 보니 어렸을 때 한국에서 미국 미네소타주로 입양이 되었고, 함께 입양된 한국인 남동생과 함께 백인 부모 밑에서 성장해 대학을 갓 졸업한 상황이었다. 나도 고등학교 시절에 홍콩에서 살면서 여러 국적의 친구들과 지낸 경험이 있긴 했지만, ‘해외 입양’이란 주제에는 처음으로 맞닥뜨린 것이라 긴장되는 면도 없지 않았다. 두 개의 이름을 가진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와 1년 넘게 ‘인턴’이란 이름으로 나와 일했고, 결국 내 인생에서 진정한 첫 ‘멘토(mentor)’가 되어 주었다. 나보다 나이가 두세 살 적다는 것은 아무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내가 이 친구를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을 12가지 색으로 보고 있었다면, 이 친구를 만나 서로의 삶을 공유하면서 48가지 색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나 할까.

그녀는 내가 인권 단체에서 일하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정독해 본 적

이 없던 ‘세계인권선언문’을 읽어 주며 가슴 벅차게 했고, 소주와 맥주밖에 모르던 나에게 ‘테킬라’ 제대로 마시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미네소타주가 미국에서도 역사적으로 가장 난민을 많이 받은 지역이라 관련 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북한의 난민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이해하게 해 주었고, 해외 입양된 사람도 생모나 헤어졌던 다른 형제자매와 재회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몸소 보여 주었고, 나에게 쿠바와 멕시코에 대한 로망을 갖게 해 주었다. 심지어 훗날 내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는 어떤 방식의 출산을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고민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해 주었다. 그때에서야 나는 처음으로 확일적이고 심지어 폭력적일 수 있는 기존 의료계의 출산 관행에 의문을 가질 수 있었고, 그 일은 지금까지도 그 친구에게 가장 감사하는 일 중의 하나이다.

다양성-‘진짜 사회 문제’를 발견하는 열쇠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 ‘다양성’이 어떤 위치에 있었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었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았는데, 이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처음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강력한 힘이었다는 것

을 알게 되었다. 놀랍게도 다양성과 관련된 경험들(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속에서는 어김없이 어떤 사회문제와 만날 수 있었다. 그것이 입양의 문제이든, 인종차별의 문제이든, 획일적 교육의 문제이든, 정신 건강의 문제이든, 장애와 소외의 문제이든, 이주와 노동의 문제이든, 직업과 존엄의 문제이든, 학대와 폭력의 문제이든, 나이 차별과 세대 갈등의 문제이든 말이다. 다양성에 더 열려 있을수록, 다양성에 더 민감해질수록, 다양성에 더 노출될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다양한 사회 현상들을 보다 예리하고 섬세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 같다. 물론 세상엔 수많은 사회문제들이 있다. 거기엔 사회문제들은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에게 중요한 사회문제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그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또는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확률도 높아지고, 내가 직접 그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더라도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의 재능이나 재원을 어떻게 기여할지 만족스러운 선택과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지금부터는 다양성이라는 열쇠를 통해 자신이 풀고 싶은 진짜 사회문제를 발견한 뒤, 실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 혁신을 일으

킨 사람들, 바로 사회 혁신가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한다. 사회 혁신이 실제로 구현되는 과정에서도 다양성의 가치와 역할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어느 정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

2부: 다양성-사회 혁신가들의 뿌리이자 열매

나는 2013년부터 아쇼카의 한국 지부 대표를 맡고 있다. 아쇼카는 1980년에 빌 드레이튼(Bill Drayton)에 의해 설립된 글로벌 비영리 조직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사회 혁신가들의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빌 드레이튼은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탄소 배출권 거래’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고안해 낸 전직 미국 환경보호청 공무원이었다.

26



ASHOKA INNOVATORS FOR THE PUBLIC

아쇼카(Ashoka: Innovators for the Public)¹⁾

아쇼카는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 90개국 이상에서 4,000여 명에 달하는 사회 혁신가를 발굴해 ‘아쇼카 펠로우(Ashoka Fellow)’로 선정해,

1) https://ashokakorea.org/ashoka_fellow/

생활비 지원, 파트너 연결, 평생 지속되는 동료 펠로우 커뮤니티 멤버십 등을 제공해 왔다. 또한 아쇼카는 ‘사회적 기업가(social entrepreneur)’와 ‘체인지메이커(changemaker)’와 같은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고 확산 시킴으로써, 사회 혁신의 정신과 방법론을 주류화하고 나아가 보편화하는 데 앞장서 왔다.

4,000여 명에 달하는 아쇼카 펠로우 커뮤니티를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나는 큰 고민 없이 ‘다양성’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만큼 그들이 풀고 있는 사회문제도, 문제를 푸는 방식도, 그 문제에 천착하게 된 이유나 계기도, 그들 스스로가 살아온 인생 경험이나 경로도, 모두 다양하고 독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회 혁신가가 만들어 낸 어떤 해결책이나 성공 모델을 복제하거나 확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회 혁신가 자체를 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내가 믿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복제 불가능한 사회 혁신가들의 ‘스토리(story)’에는 커다란 힘과 확장성이 있다. 그들이 삶 속에서 마주하고 경험한 사건이나 상황들은 우리 모두의 일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며, 그들이 해야 했던 고민과 선택의 순간들을 우리 모두도 각자의 삶에서 어떤 식으로든 겪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 혁신가들이 지닌 다양성의 진폭

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스토리에서 영감을 얻거나 자신에게 꼭 맞는 지혜나 해결책을 발견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생각한다.

그럼 이제부터 4명의 아쇼카 펠로우들을 만나 보자. 그들이 다루는 사회문제가 우리의 삶 자체 그리고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의 생애 주기 순서에 맞춰서 펠로우 4명의 스토리를 간략히 공유해 보고자 한다.

펠로우#1: 메리 고든(Mary Gorden)



관련된 생애 주기: 영유아기/초등학교 연령

활동 지역: 캐나다 포함 전 세계 15개국

단체명: 공감의 뿌리(Roots of Empathy)²⁾

키워드: 학교 폭력, 아기 교사, 정서·사회교육, 공감 능력, 트라우마

캐나다 토론토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교 교실 기반 어린이 공감 교육 프로그램이자 단체가 된 ‘공감의 뿌리’의 창시자인 메리 고든은 원래 유치원 교사였다. 그녀는 일찌감치 가정 내에서 부모

2) <https://frcan.rootsofempathy.org/roots-of-empathy/>

와 아이의 관계가 갖는 결정적이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감지했고, 교육 시스템과 가정 사이에 존재하는 단절을 다시 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히 가정 내 폭력이나 트라우마는 평생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끼치거나 대물림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경각심을 느꼈다. 캐나다 최초의 ‘양육 및 가정 리터러시센터(Parenting and Family Literacy Centers)’를 설립해 거리, 세탁소, 레스토랑 등 부모들을 만날 수 있는 곳 어디에서나 자신의 생각과 새로운 접근법을 알리기 시작했고, 1996년에 ‘공감의 뿌리’를 설립해 어린이들의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교 교실 기반의 프로그램을 캐나다 공교육으로 확산시켜 나갔다. 지금은 이 프로그램이 캐나다를 넘어 아일랜드, 미국, 뉴질랜드, 영국을 포함해 약 15개국에 전파되었고, 지금까지 1백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의 삶에 영향을 끼쳤다.

이 프로그램이 지난 25년 이상 꾸준히 명성을 얻으며 확산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나는 그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무슨 말일까? ‘공감의 뿌리’ 수업의 교사는 태어난 지 2-3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기이다. 실제로 ‘Baby Teacher’라고 쓰인, 어른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공감의 뿌리’ 전용 티셔츠를 입고 당당하게 초등학교 형, 누나들이 있는 교실로 입장한다. 물론 아기의 엄

마, 그리고 훈련 받은 ‘공감의 뿌리’ 강사가 함께한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이 아기 선생님과 학기 초부터 한 학년이 끝날 때까지 거의 1년 동안 정기적인 만남과 교감을 갖게 된다. 처음에는 목도 가누지 못하던 아기가 점차 몸을 뒤집고, 기고, 앉고, 서고, 걷기 시작하는 생애 첫 1년이라는 폭풍 성장의 과정을 지켜보는 것뿐 아니라, 말 못 하는 아기의 다양한 감정과 욕구에 반응하는 중요한 존재와의 상호작용, 즉 아기와 엄마의 관계를 중심으로 관찰과 추측, 대화, 소통하는 일련의 학습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는 매우 놀라웠다고 한다. ‘공감의 뿌리’ 수업을 경험한 어린이들에게서 호전성과 폭력성이 현격히 줄어들었고, 소위 ‘문제아’라고 불리거나 심각한 트라우마를 가진 아이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공감의 뿌리’의 슬로건은 ‘Changing the world, child by child’이다. 한 번에 한 명씩, 한 아이의 삶을 바꿈으로써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메리 고든은 이 일을 시작한 지 30년 가까이 되어 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사명을 위해 뛰고 있다. 그녀의 저서 『공감의 뿌리』는 한국어로도 번역·출판되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아쇼카한국의 미래교육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에 비영어권 국가로서는 최초로 한국의 수도권 6개 초등학교 12개 교실에서 ‘공감의 뿌리’ 프로그램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펠로우#2: 브렌 스미스(Bren Smith)



관련된 생애 주기: 청장년기

활동 지역: 미국

단체명: 그린 웨이브(Green Wave)³⁾

키워드: 해양생태계 복원, 다시마, 해조류, 일자리, 기후변화, 미래 식량

‘그린 웨이브’의 설립자 브렌 스미스는 현재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해결사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친환경 기업으로 널리 알려진 브랜드 ‘파타고니아’의 창립자 이본 쉬나드(Yvon Chouinard)도 최근 그를 ‘영웅’으로 추켜세울 정도이니 말이다. 하지만 그는 원래 친환경과는 매우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학교를 중퇴하고 10대 중반부터 오랫동안 바다로 나가서 고기 잡는 어부로 일했다. 그는 자신이 바다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이 잡은 물고기가 미국 국민들의 식탁에 오른다는

3) <https://www.greenwave.org/>

것을 늘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가 가장 많이 납품하던 회사 중 하나가 바로 맥도날드(‘필레오-피시 버거’를 위해)였다고 한다. 하지만 물고기를 잡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그가 상업적 어부로 먼 바다를 누비던 호황기 10여 년 동안, 당시 업계가 주로 사용하던 어업 방식은 저인망으로, 말그대로 그물을 사용해 바다 생태계의 바닥까지 긁어내는 파괴적 방식이었던 것이다. 너무 많은 물고기들이 불필요하게 그 그물에 걸려 죽거나 가차 없이 버려졌다. 바다 생태계는 균형을 잃고 점차 황폐해져 갔고 생물 다양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그러다 어느 날 큰 기후 재난이 닥쳤고, 회복 탄력성을 잃어버린 바다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하루 아침에 자신과 수만 명의 동료 어부들이 일자리를 잃고 사랑하는 바다로 돌아갈 수 없게 되자, 그는 무언가 크게 잘못됐었다는 걸 깨닫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그린 웨이브’이다. 최근 10여 년간 브렌 스미스는 세상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식물 중 하나이자 가장 많은 탄소를 흡수하는 식물 중 하나인 다시마를 중심으로 세계 최초의 ‘다종 3D 해양 농업’을 개발해 보급 중이다. 여기에서 다종이라 함은 미역, 가리비, 홍합, 굴, 조개까지 여러 품종의 해양생물을 우리와 밭줄을 활용해

상호 보완이 되는 수직(vertical) 물기둥 구조로 기르는 것을 말한다. 이 모델은 신선한 물, 비료, 살충제를 전혀 투입할 필요가 없는 데 반해, 연간 1에이커(acre)당 20톤의 해초와 50만 마리의 조개를 양식할 수 있는 생산성을 자랑한다고 한다. 또한 진입 장벽도 낮아서, 바다 면적 20에이커, 배 한 척, 미화 약 2~5만 달러면 거대한 초기 자본 없이도 누구나 해양 농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 월드뱅크(World Bank)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바다의 1%에서만 해초 농사를 짓게 해도 무려 5천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생긴다고 하니, 그 파급력을 짐작해 볼 수 있겠다.

브렌 스미스의 이 모델이 최근에는 ‘복원적 해양 농사(regenerative ocean farming)’라고 불리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을 넘어서는 더 큰 영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 모델 자체가 해양 생태계 복원은 물론 바다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기후변화 문제 같은 심각한 환경문제 해결에도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 자란 굴 한 개체는 하루에 50갤런의 물을 정화할 수 있다고 하고, 버려지는 해초를 화석 연료 기반의 패키징 제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대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해초를 가축인 소나 양의 사료에 섞어 먹이면 온실가스의 주범 중 하나인 메탄가스를 60~80%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럼, 브랜 스미스가 하고 있는 일은 단지 어부들의 일자리를 지켜 준 것
 뿐 아니라, 그 직업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역할을 미래 지향적으로 대폭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펠로우#3: 올레 카소우(Ole Kassow)



관련된 생애 주기: 시니어, 다양한 세대

활동 지역: 덴마크 외 전 세계 50개국

단체명: 싸이클링 위다웃 에이지(Cycling Without
 Age: CWA)⁴⁾

키워드: 요양 시설, 노인, 자전거, 시민성, 세대
 연결, 커뮤니티, 관계

2012년 가을, 덴마크 코펜하겐의 어느 요양원에서 시작된 이 특별한 자
 전거 타기 프로그램은 불과 2년 만에 덴마크 전역의 100개 이상의 요
 양원에서 진행되었고, 2014년 9월에 설립자인 올레 카소우가 이 이야
 기를 TEDxCopenhagen에서 한 이후로는 세계 곳곳의 관심이 쇄도해
 지금까지 50개 이상의 나라로 확산되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 이 모든

4) <https://cyclingwithoutage.org/>

것의 시작은 올레 카소우가 여느 때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길에 어느 요양원 앞에서 90대 연로한 남자와의 만남이었다. 그는 그 노인도 젊었을 때에는 자신처럼 자전거를 타고 꽤 먼 거리의 일터까지 출퇴근을 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고, 그에게 다가가 자전거를 다시 타고 싶는지 물었다. 대답은 “물론 그렇다!”였다. 그다음 날 그는 3륜 자전거를 한 대 빌려서 다시 요양원을 찾았고, 그때부터 요양원에 사는 노인들을 한 분씩 밖으로 모시고 나가 코펜하겐시 곳곳을 함께 돌았다. 노인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함께 나눈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처음에 만난 그 90대 노인이 20대 때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왕실의 경호원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얼마 후 코펜하겐시로부터 5대의 3륜 자전거를 제공 받았고, 1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합류하면서 CWA라는 정식 단체가 만들어졌다.

이 단순히 보이는 솔루션이 가진 의미와 임팩트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주로 70~90대 노인들이 승객이 되고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 함께 자전거를 타는데, 양쪽 모두의 삶의 질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치매 증세가 있는 노인들의 경우에도 자전거를 타고 돌아온 날이면 평

소보다 공격성이 줄고 밝은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시각 장애가 있는 노인들의 경우엔, 자전거를 타면서 느끼는 들판의 꽃향기나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좋았다는 이야기부터, 놀랍게도 머리카락 사이를 통과하는 바람을 느끼는 것이 좋다는 피드백도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올레 카소우는 자신이 하는 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right to wind your hair’, 즉 바람에 머리카락을 훑날릴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위트 있게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은 고차원의 기술이 아닌, 자전거 한 대와 다양한 세대 간의 관계 맺기를 통해 가능하다고 말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이동의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고립과 격리가 아닌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의 즐거움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함을 유쾌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문득 궁금하지 않는가? 올레 카소우는 왜 이 일에 거의 지난 10년을 열정적으로 바쳐 왔을까. 그에게도 개인적인 사연이 있었다. 바로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중추신경이 마비되는 질병으로 하루아침에 왕성한 사업가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되었고, 결국 그가 23세 때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유머 감각과 낙천성을 유지했던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까지 그는 이동의 자유가 크게 줄어든 아버지와 바깥세상을 연결하는 든

든한 다리의 역할을 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 그의 솔루션에 더욱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유이다.

펠로우#4: 카트리나 스페이드(Katrina Spade)



RECOMPOSE

관련된 생애 주기: 죽음 전후

활동 지역: 미국

단체명: 리컴포스(Recompose)⁵⁾

키워드: 죽음, 장례 문화, 매장, 화장, 기후변화

죽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전히 사회적으로 터부시되는 주제이다. 그런데 여기 죽음과 장례라는 주제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독창적인 솔루션으로 사람들의 사고와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가는 사회 혁신가가 있다. 카트리나 스페이드는 어렸을 때 의사 집안에서 자랐다고 한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의사였던 부모님으로부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고, 그 덕분에 죽음은 그녀에게 자연스러운 대화 소재였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가족들처럼 의대에는 진학하지 않았고, 대신 디자인에 관심이

5) <https://recompose.life/>

많아 건축을 전공했다. 결국 그녀는 죽음 이후 인간의 몸이 다뤄지는 절차와 과정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일을 하게 된다.

카트리나 스페이드가 발견한 문제는 기존의 사후 처리 방식과 장례 문화가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상업적이라는 것이었다. 더욱이 죽은 사람을 떠나 보내는 방식으로 매장 또는 화장이 있는데, 둘 다 지속 가능하지 않거나 환경에 부담을 주는 것이었다. 특히 보다 바람직한 방식으로 여겨지는 화장의 경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지구에서 보내는 마지막 순간마저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기후변화를 가속화하는데 일조하는 것이다. 과연 그래야만 하는가 하는 질문에서 그녀의 혁신은 시작된다. 지구 환경에도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고인은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가족들에게 매장과 화장 외의 다른 경험과 선택지를 제공할 수는 없을까를 고민했다. 결국 그녀는 인간의 죽은 몸이 자연의 흐름으로 가장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변형 과정-일명 ‘퇴비화’ 과정-을 실험하고 정교화하기 시작했고, 2014년에 설립한 비영리단체 ‘Urban Death Project’에 이어 2017년에는 정식으로 ‘생태적인 죽음 케어(ecological death care)’를 표방하는 사회적 기업 ‘Re-compose’를 설립했다. 그 후로도 지속된 연구와 실험을 거쳐, 드디어

2019년에 미국의 워싱턴주로부터 세계 최초로, 이제 ‘natural organic reduction(NOR)’이라 부르는 새로운 사후 처리 방식을 법적으로 승인 받았다. 2020년에는 한화 80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받게 되고, 그해 겨울부터 시애틀 남부에 건립한 전용 장소에서 특수 제작된 ‘캡슐(vessel)’에 의한 ‘인간 퇴비화’서비스를 시작한다. 2021년에는 콜로라도주와 오리곤주가 나란히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이 서비스를 합법화한 지역이 되었다. 앞으로도 전망은 밝아 보인다.

흥미롭게도 ‘Recompose’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는 데 씨앗이 된, 2011년의 여름 어느 날에 있었던 카트리나 스페이드의 개인적인 경험이 소개된다. 바로 당시 자신의 어린 아들을 바라보다가 지금처럼 아이가 빨리 커서 언젠가 40세가 되면 그때 자신은 이미 70세가 넘는 나이라는 걸 문득 깨닫게 되었고, 그 순간 자신의 죽음과 유한성에 대해 진지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 ‘Recompose’ 아이디어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다고 한다. 비웃음이나 오해를 받기 쉬운 아이디어였지만, 그녀에게는 지난 10년 동안 이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해 준 자신만의 분명한 ‘Why(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 나가며

지금까지 간략히 소개한 4명의 사회 혁신가들의 이야기 중 어느 한 대목에서라도 이 글을 읽는 사람의 마음에 울림이나, ‘아하!’의 순간이 있다면 나는 충분히 보람을 느낄 것 같다. 그 마음 진동의 의미를 각자 잘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라는 말은 영화감독이나 예술가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위 네 명의 사회 혁신가들의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개개인의 다양하고 고유한 삶 속에서의 문제의식과 도전 정신이 사회 혁신의 가장 중요한 자양분이 되기 때문이다. 때로는 자신의 결핍이나 약함이 어떤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기도 한다.*

* 전시 소개: 서울 독립문 근처에 문을 연 세계 최초의 ‘사회 혁신 뮤지엄’인 ‘아쇼카 스페이스’에서 ‘다양성의 힘(Power of Diversity)’이라는 주제로 2022년 3월부터 약 6개월간 전시를 진행한다. 사람의 오감(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을 매개로 다양성과 힘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지향점을 보여 주는 전 세계 다양한 사회 혁신가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엘리트 중심 의사결정의
한계와 다양성의 필요성:
교육 복지 생태계를 중심으로

이 의 헌

교육 소셜 벤처 점프 설립자 겸 대표

디베르시타스(Diversitas). 발음도 어려운 이 잡지의 독자는 대부분 엘리트일 것으로 추측된다. 다행이다. 이 글의 목적은 엘리트 집단이 공적인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현실 자체와 그 결과물의 적절성을 생각해 보는데 있기 때문이다. 핵심 독자인 대학 구성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엘리트 중에서도 교수 사례를 예로 많이 가져왔다.

이 글은 지난 10년간 교육 봉사 단체 ‘점프’에서 일한 경험에 기반한다. 엘리트 중심 의사결정의 한계와 다양성의 필요성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자동차 경음기, 탈북자 서재석 씨, 티치 포 아메리카, 공급자 중심 접근법, 교육 불평등 토론회, 정부 혁신위원회, 코로나와 온라인 교육 등 직접 경험한 사례를 다룬다. 각각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독자의 마음에 불편함과 동의할 수 없는 감정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글을 쓴 보람이 있을 것 같다.

■ 들어가며

자동차 경음기

25년 전 이야기로 시작해 보자. 해외 경험의 기회가 지금보다 적었던 1990년대. 미국에 유학을 다녀온 교수님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미국 사람들은 참 시민 의식이 높다. 운전 중 앞차가 멈춰 있어도 절대 경음기를 울리지 않고 기다리거든.” 이런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젊은 청년에게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과 팩스 아메리카나로 상징되는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대학 졸업 후 운 좋게 미국 LA의 한 언론사에 취직해 8년간 일했고, 그 뒤 2년은 보스턴의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미국 사람들이 자동차 경음기를 울리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시민 의식이 높아서만은 아님을 알게 되었다.

해변가 대도시를 제외하면, 미국의 많은 대학은 대학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형성된 작은 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미국 운전자의 높은 시민 의

식을 이야기하셨던 분들은 아마도 이런 캠퍼스 타운에서 공부를 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대도시가 아니니 교통 체증이 거의 없고, 작은 대학타운의 특성상 아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경음기를 누를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다.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같은 대도시 출퇴근 시간의 분주함은 우리 대도시와 형편이 비슷하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읍·면 지역에 가면 도시보다 경음기 소리의 빈도가 확실히 줄어든다.

당시 내가 받은 자극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또는 ‘확증편향’ 사례였다. 우리나라 운전자가 경음기를 울리는 것은 심한 교통 체증과 대도시 속에서의 익명성 등이 주요 이유인데, 낮은 시민 의식에서 원인을 찾으니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경음기의 주된 사용 목적은 사고 위험에 대한 경고이고, 경음기 소음의 부정적 특성이 사회적으로도 부정적 역할을 끼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¹⁾ 주장도 있으니, 경음기를 울리는 것이 낮은 시민 의식의 결과라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경음기 이야기로 글을 시작한 이유는,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점에 동의할 얻기 위해서다. 사적 영역에서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자연스럽고

1) 유성준, 오주석, 정미경, 이세원. (2019). *운전 중 의사소통수단 활용과 교통안전의 관계* (2019-0103-042). 원주: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괜찮다. 문제는 공적인 영역에서도 편향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다. 적어도 내가 만난 교육 복지와 사회 혁신 분야의 많은 엘리트들 역시 그런 경향성을 종종 보여 주고 있다. 이 글의 다양한 사례들을 읽고 당신이 좀 더 균형 잡힌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더 없이 기쁠 것 같다.

미국 생활 10년은 경음기를 누르고 안 누르는 행동의 진짜 원인을 고찰하게 해 주었을 뿐 아니라, 내 자신의 정체성도 돌아볼 수 있게 했다. 서울에서 태어나 명문고와 명문 대학을 졸업한 군필 남성. 나는 엘리트 이면서 다수자였다. 낯선 미국에서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이주 노동자로 살기 전에는 다수자와 엘리트 집단이 누리는 편안함과 우월감이라는 장막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하지만 소수자의 삶을 살면서 이 장막 밖을 조금은 볼 수 있었고,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는 엘리트적 사고방식의 한계에 대한 단서도 얻었다.

기자라는 직업 덕분에 이런 생각은 개인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었다. 영화와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는 베벌리힐스 부자들의 비현실적 삶과 어바인 중산층의 안락한 삶을 보았다. 그 반대쪽에 있는 불법 체류자라고도 불리는 서류 미비 이주 노동자, 부모님 때문에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 이민 1.5세와 2세대, LGBT(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라 불리는 성 소수자들, 아프가니스탄의 전쟁 난민, 고향 북한에 대해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는 탈북 청소년,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노숙자와 도시 빈민들도 취재했다. 다양한 삶의 모습과 만나며 약 30년 동안 내가 바라보고 생각해 온 세계관이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탈북자 서재석 씨

두 번째 이야기 보따리는 내가 취재했던 북한이탈주민 서재석 씨의 이야기다. 아래 사진을 찬찬히 보자.



미국 망명 허가 받은 서재석 씨 가족
출처: 미주한국일보²⁾

취재 당시 서재석 씨는 제3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해 우리처럼 한국

2) 이의현. (2006.04.29). 망명허가 받은 서재석씨 가족. *미주한국일보*. <http://m.koreatimes.com/article/20060429/311816>

여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10년을 탈북자로 한국에 살았던 서씨를 미국 법원에 망명 신청을 한 최초의 한국 국적 탈북자로 만났다. 북에서 군인으로 안정적 삶을 살았던 서씨는 폭발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어 군복을 벗게 된 뒤 월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차별 때문에 장애를 가진 탈북자가 지속가능한 경제생활을 하기 어렵고, 그 차별이 아이들에게까지 대물림되어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하다. 미국이 나의 망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다시 제3국으로 가야 하고, 그럼 가족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는 논리가 받아들여져 망명이 승인됐다.³⁾ 현재에도 수백 명의 한국 국적 북한이탈주민이 미국에 망명 신청을 했거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씨가 한국에서 차별을 느낀 것은 벌써 20년 전의 이야기이다. 하지만 오늘 우리 주변의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성 소수자 같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의 시선과 차별이 그때와 비교해 얼마나 나아졌는지는 의문이다. 아무튼 그때는 이런 삶을 지켜보고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목격자’인 기자의 삶도 의미 있었지만, 현

3) 이의현. (2006.04.30). 한국서 교사체벌 항의했더니 ‘공짜 밥 먹는 탈북자’ 말들어. *미주한국일보* <http://m.koreatimes.com/article/20060430/311906>

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실천자’가 되고 싶어 공공정책 대학
원에 진학했다.



교육 소셜 벤처 ‘점프’

대학원에서 머릿속에 자리 잡은 문제의식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의 주어진 환경으로 인해 기회가 제한되고, 그것으로 인해 삶의 다양한 가능성이 한정되는 사회가 옳은가?’였다. 대학원에서 만난 많은 친구들과 2년의 시간 동안 이런 문제의식을 나누며 여러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아, 졸업논문 대체 정책 보고서로 ‘점프’를 제안했다.⁴⁾ 그리고 6명의 한국 출신 유학생 친구들과 많은 지인의 도움을 받아 2011년에 한국으로 역이민하면서 사단법인 점프를 시작할 수 있었다.

11년이 지난 지금은 매년 약 1,000명의 청년·대학생이 다양한 배경의 어린이·청소년 약 4,000명에게 1년 단위, 소그룹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학습을 중심으로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 글은 점프가 아닌, 점프를 하면서 느낀 엘리

4) Yi, E.(2011). *Higher Academic Achievement and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 Children*(Unpublished master's thesis). Harvard Kennedy School, Boston, Massachusetts.

트 중심 세계관의 한계에 대한 글이다. 따라서 이주 노동자로 미국에서 살 당시 느꼈던 문제의식인 사회적 약자의 공정한 기회를 증대하기 위해 점프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임팩트를 만들어 내는지 궁금한 독자는 관련 논문과⁵⁾ 홈페이지(www.jumpsp.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티치 포 아메리카(Teach for America)

대학원에서 졸업논문을 쓸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기존 시장을 분석한 것이었다. 티치 포 아메리카(TFA)가 가장 많은 영감을 주었다. TFA는 미국 대학생들이 졸업 후 2년 동안 빈민 지역 공립학교에서 2년간 교사로 일하는 프로그램이다. 웬디 콕(Wendy Kopp)이 프린스턴대학 재학 중 TFA 계획을 졸업논문으로 제출했을 때 지도교수는 비현실적인 아이디어라고 평가했다.⁶⁾ 하지만 30년 뒤 TFA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육 봉사 단체 중 하나로 성장했다.

5) Hong, S. & Kim, T.K.(2018). Public-private partnership mee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 case of H-JUMP school. *Public Money & Management*, 38(4), 297-304.

6) 웬디 콕. (2009). *열혈교사 도전기: 아이들이 꿈꾸는 희망교육*(최유강 옮김). 서울: 에이지21. (원서출판 2001).

미국 사회도 이 운동에 화답했다. 내가 다녔던 학교를 포함해 많은 대학원이 TFA 졸업생을 위한 별도 입학 전형을 마련하고, 기업에서도 관련 경력을 인정하는 등 공공성을 실천한 인재 육성을 권장하고 있다.

TFA모델에 감동을 받아 처음에는 한국 지부 설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당시 TFA는 공립학교에 교사를 파견하는 미국식 모델을 고집했다. 한국은 전국의 공교육 수준이 비슷한 데다, 획일화된 교사 채용 방식, 강력한 교사 노조 등으로 인해 자격이 없는 대학생이 교사로 채용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러 차례 이러한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접근을 요청했지만 결론은 같았다.

관점을 바꿔 한국의 사례들을 살펴봤다. 한국은 일제시대의 ‘브나로 드(Vnarod)운동’과 광복 이후 야학에서 시작되는 깊은 교육 봉사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지금도 다양한 정부 기관, 기업, 비영리단체, 대학 동아리 등이 멘토링과 교육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관심과 자원 투입에도 교육 기회와 성과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원인이 궁금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시적 원인이 아닌,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는 미시적 원인에 접근을 해 보았고 공급자 중심 방법론으로 많은 설명이 되었다.

공급자 중심 접근법

공급자 중심 접근은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프로그램들이 공급자 위주로 설계된다는 것이다. 교육 봉사 활동의 경우 재원을 제공하는 정부 기관과 기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생 등이 주요 공급자다. 프로그램 설계에 자문을 하는 교수나 학자, 현장 전문가도 넓은 의미의 공급자라 할 수 있다. 당연히 수요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이다. 이 과정에 참여하는 공급자는 대부분 선의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선의를 가진 엘리트가 내리는 의사결정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했다.

정부와 기업의 담당자와 책임자는 자신의 임기에 결과물을 보기 원하고,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를 원한다. 대학생은 자신의 학기 스케줄에 맞추어 3개월 정도의 단기 봉사를 선호한다. 현장 전문가들은 자신의 전공과 관심사에 맞추어 이런저런 프로그램과 접근법, 솔루션을 제시한다.

이렇다 보니 10년 전에도 지금도 교육 봉사 생태계에는 건물을 지어 주거나 컴퓨터 같은 물품을 지원하는 하드웨어적 접근이 넘쳐난다. 그러나 교육 환경이 열악할 것으로 생각할 도서 지역 학교의 대다수는 학

교 시설도 좋고 컴퓨터, 드론, 3D프린터 등 첨단 교육 보조 기구가 넘쳐난다. 엘리트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다양한 심리 상담, 독서 토론, 기업가 정신교육,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 미술 치료, 연극 동아리, 코딩 수업 등등이 제공되고 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가 뒤따른다. 대학생들은 계획된 단기 프로그램을 많은 아이들에게 전달하면서 이력서에 봉사 활동 경력을 채워 넣는다.

수요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선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복지 기관의 선생님들은 아동·청소년이 아닌 대학생의 스케줄에 맞추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데다 관리도 어렵고, 제공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도 많아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거나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아이들은 프로그램 평가를 할 때 “어떻게 써 드릴까요?”라고 먼저 물어볼 정도로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노출된 프로그램의 패턴에 학습이 되어 있다. 대학생 자원봉사자도 다른 공급자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아이들은 “선생님, 대충 시간이나 때우다 가세요. 어차피 선생님도 우릴 떠날 거잖아요.”라는 반응을 보인다.

교육 봉사를 해 보았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대부분 충

격을 받는다. 모두가 선의를 가지고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봉사하고 희생하지만 결과는 의도와 다르다. 이유는 엘리트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효과적이고 이상적인 결과를 실험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삶은 실험 대상이 아니기에 이상적이지 않고, 효과적일 필요도 없다.

학창 시절 나는 어떻게 성장했고, 내가 내 자녀에게 무엇을 해 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된다. 학생은 공부가 주업이고, 학업에서 높은 성취를 거둘 때 자존감을 포함한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관심(당근과 채찍), 롤모델이 되는 주변의 좋은 선후배, 친구들과 과의 건전한 또래 압력(peer pressure) 등 복합적 자극이 필요하다. 여러분은 이런 관계 속에서 성장했는지, 심리 상담, 미술 치료, 기업가 정신 교육, 독서 토론 같은 프로그램 덕분에 성장했는지 자문해 보면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그래서 ‘점프’는 기존 솔루션들과 문제에 거꾸로 접근했다. 프로그램이 아닌 사람 사이의 관계와 믿음에 기반했다.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만남을 통해 멘토(mentor)와 멘티(mentee) 사이에 라포(rapport)가 형성되어야 서로가 자신의 결핍과 꿈을 이야기하면서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

고, 그래야 두 사람이 신뢰의 관계 속에서 그 목표를 향한 여정을 함께 시작할 수 있다. 그게 현장에서 원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그래서 지금도 수요자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핵심 방법론으로 지키고 있다

엘리트 중심 의사결정의 한계

10년 넘게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비영리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엘리트들을 만났다. 그중에는 현장과 수요자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훌륭한 분들도 많았다. 하지만 엘리트 중심 의사결정의 한계를 생각해 보기 위해 다소 극단적이지만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한다.

교육 불평등 토론회

창업 초기 한 소셜 벤처가 주최한 교육 불평등 문제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전통적 토론회가 아니고, 당시 20~40대 젊은 현장의 전문가들과 교육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격의 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다. 유학을 다녀온 어느 참가자가 “유학 생활을 하다 보니 한국 학생은

자신의 생각을 잘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이는 한국의 주입식 교육에 원인이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활기를 띠었다. 교육 불평등 문제에 관심 있는 엘리트들답게 유학을 다녀온 사람이 많았고, 참가자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주입식 교육을 시작으로 입시 위주의 교육 정책, 획일화된 커리큘럼,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교육 시스템, 교사 이기주의 등등 많은 문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누군가는 토론 교육이, 누군가는 코딩 같은 기술 기반 교육이, 누군가는 학부모 교육이, 누군가는 다양한 경험이 교육 불평등의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은 학습에서 높은 성취를 달성한 엘리트 학생들의 문제에 집중하고 말았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느리거나 낮은 성취를 이루는 다수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당사자가 없었고, 그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왜 그랬을까? 다음의 표를 보면 그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에 따라 자녀의 미래가 결정되니, 이미 개천 용은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엘리트

집단이 점점 더 비슷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지니 결국 자신들의 렌즈로 세상을 보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에 따른 수학 학업성취 수준

(단위: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분위(하위 20%)	43.91	41.49	42.63
2분위(하위 40%)	48.23	46.82	46.29
3분위(상위 60%)	50.50	50.80	49.68
4분위(상위 40%)	54.67	54.59	54.39
5분위(상위 20%)	58.21	60.29	61.86

* 2003~2011년 전국 최대 672개 초·중·고교학생 4만123명 대상 수학 평균점수 분석결과로, 학업성취수준은 전체 평균을 50점, 표준오차를 21점으로 잡은 표준화 점수

출처: 세계일보⁷⁾

교육 불평등 토론회에서 만난 젊은 엘리트들은 대부분 자신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더 좋은 사회를 위한 문제의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훌륭한 청년들이었다. 운 좋게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님을

7) 송민섭. (2013. 2.12). 부모소득 따라 자녀 수학점수 최대 19점차. *세계일보*. <http://m.segye.com/view/20130212024829>.

만나 강남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오고 명문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라면 우리 주변에 월 30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할머니와 함께 사는 어린이를 직접 만나기는 어렵다. 이주 노동자 부모님을 돕기 위해 중학교 졸업 후 공장에 취업하는 것이 꿈인 청소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도 당연하다.

‘점프’에도 많은 엘리트 대학생이 찾아온다. 하지만 이들은 점프에서 1년간 활동한 뒤 조금은 바뀐다. 자신이 속한 과와 학교가 아닌 다른 배경의 동료 대학생들을 만나고, 자신이 전혀 생각지 못하던 분야에 종사하는 사회인 멘토를 통해 다양한 삶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배경의 어린이, 청소년과 라포를 형성한 대학생 봉사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다. 청소년들을 통해 자기가 살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 우리 지역에도 존재함을 알게 되었고, 멘티로부터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이다.

엘리트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다양성을 접하고 경험할 기회다. 현실은 그렇지 못해 그날의 토론회는 산으로 갔지만, 사적 의견의 교환이라 크게 걱정할 것은 없었다. 문제는 대부분의 엘리트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더 자신의 전문 분야와 그 인적 네트워크에 고립되어 다양성에 대

한 감수성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결국 많은 엘리트들은 공적 의사결정의 영역에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아닌 자신의 경험과 관점에서 판단해 크고 작은 불합리와 불공정을 야기한다.

정부 혁신위원회

중앙정부 한 부처 혁신위원회에서의 경험이다. 정부 시스템과 보상 체계, 제도 혁신을 고민하는 위원회였는데, 위원은 주로 50대와 60대의 행정학과 교수였다. 교수 위원들은 이미 공무원과도 친분이 깊었다. 민간 전문가로는 나와 대기업의 30대 여성 등이 포함되었다. 위원회의 취지에 맞추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중년 남성 교수 중심인 위원회 구성의 변경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공무원과 친한 기성세대보다는 그렇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다.

조심스럽게 “우리 위원회가 특별한 이권이나 보상이 주어지는 자리도 아니니 연령과 성별, 직업 등 인구 분포를 고려해 임명하면 어떨까요?”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상을 깨고 여성 교수가 반대를 했다. 그분

은 기계적 중립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위원장은 좋은 의견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계속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위원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때의 경험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주었다. 적어도 그 여성 교수에게는 여성이라는 정체성보다는 교수라는 정체성이 더 크고 중요했던 것 같다. 만일 그분이 내 의견에 동의해 위원회 구성을 인구 비례에 맞추어 재편하고, 모든 중앙정부 기관 산하 위원회의 위원을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구성하도록 제안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가끔 한다.

안타깝게도 정부의 다양한 위원회, 자문 회의, 정책 토론회 등에 참여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유사한 경험을 했다. 어느 부처가 주관하느냐에 따라 주인공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되기도 하고, 경영학과 교수가 되기도 하고,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시민사회 운동가가 되기도 하고, 공무원이 되기도 할 뿐이다. 많은 경우 이 주인공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개인의 이해관계 혹은 관점에 맞추어 교육 불평등 토론회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내곤 했다.

코로나와 온라인 교육

마지막 이야기는 최근 교육계에서 뜨거운 열풍이 불고 있는 온라인 교육에 대한 것이다. 코로나로 어쩔 수 없이 시작된 원격 수업은 온라인 교육 시장의 문을 활짝 열었다. 물론 이미 대입과 취업 분야에서 인강(인터넷 강의)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었지만, 오프라인 기반 공교육의 파행적 운영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초·중등 교육으로까지 온라인 교육이 급속히 확장되었다. 소위 에듀테크(education tech)라 불리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뿐 아니라 전통적 교육 관련 기업들도 AI와 빅데이터를 내세우며 온라인 교육 플랫폼과 솔루션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교육 복지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앞에 기술한 대학생 중심 교육 봉사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해결할 솔루션으로 온라인 교육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기술 기반으로 개인에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는 온라인 교육의 보편적 효과성과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이 글의 관심 사항은 아니다. 다만 교육 복지 분야에서 현재의 접근법이 과연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기초, 광역, 중앙정부와 몇몇 기업, 대학은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 교육 복지 대상에게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기업의 교육 솔루션을 구매하면서 ‘모든 아이들이 가정 형편과는 상관없이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자랑한다. 하지만 앞에 적은 것처럼, 꿈이 없고 동기가 없는 대상에게는 이런 자극을 제공해도 높은 효과가 나오기 어렵다. 인강과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접해 본 사람은 그것이 동기부여 된 학생이 주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받을 때 유효한 솔루션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점프’도 폐광 지역 청소년과 폐광 지역 대학생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온라인 교육 기법(화상 멘토링)을 사용하고 있고, 비교적 잘 작동한다. 참가하는 대학생과 청소년이 같은 지역 출신으로 동네와 학교의 선후배라는 유대감이 있어 온라인에서도 빠르게 라포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장과 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다.

교육 분야의 많은 엘리트들이 점점 더 온라인 교육의 우수성과 효과성을 내세우는 걸 보면 교육 복지 분야에서도 온라인 기반 프로그램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다. 어릴 때부터 높은 수준의 교육과 자극을 받은 본인에게는 크게 거부감이 없는 데다 비용 면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다. 반복되지만, 이 글을 읽는 독자는 엘리트의 관점이 아닌 수요자 관점으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사회문제를 바라보기를 부탁한다.

오래전 자동차 경음기 이야기를 해 준 교수님도, 웬디 콥에게 티치 포 아메리카가 비현실적이라고 충고한 교수님도, 교육 불평등 토론회에 참여했던 젊은 인재들도, 정부 혁신위원회에 참여했던 교수님들도, 코로나 시국에 온라인 교육을 복지 분야에 도입한 공무원도 모두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라 믿는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결정이 옳았는지는 잘 모르겠다.

맺는말

이번 글의 큰 주제는 ‘대안 교육, 청년 교육’이다. 대안 교육 전문가도 청년 교육 전문가도 아니어서 해당 분야를 다양성 관점으로 분석하지는 못했다. 대안 교육, 청년 교육 분야를 포함해 특정 분야의 엘리트 전문가들이 자신의 경험과 관점에 기반해 문제를 분석하고 솔루션을 내놓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현장 수요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해결방식을 선택한 것이 다행인 것 같기도 하다. 같은 맥락에서 교육 불평등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점프’가 고민하고 실행했던 많은 일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다만 현장과 수요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이 글을 쓴 이유는 안타깝게도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만난 많은 엘리트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이해관계에 기반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글을 읽은 독자라면 아무리 뛰어난 엘리트여도 그런 방식의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고 다

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학원에서의 경험을 나누면서 글을 정리하려 한다.

국제기구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통계 과목 교수는 “여러분이 모국에 돌아가면 수학과 숫자로 무장한 다양한 엘리트 집단이 통계자료를 내세우며 여러분을 설득하려 할 것이다. 통계를 배우는 것은 통계학자가 되는 데 있지 않고, 그런 환경 속에서 최선의 솔루션을 찾는 데 있다”고 말했다.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거의 모든 교수가 학문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현실에서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라고 반복해 말했다.

졸업생들의 마지막 수업은 정년을 앞둔 노교수님과의 대담으로 진행됐다. 그때에도 교수님은 한결같이 “너희가 아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고향에 돌아가면 적어도 3년 동안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했다.✱

이의현

교육 소셜 벤처 점프(www.jumpsp.org)의 설립자 겸 대표. 비영리 사회적 기업이기도 한 점프는 청소년과 대학생, 사회인을 연결하는 고유의 체인 멘토링 모델을 통해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학원에서 만난 친구들과 점프를 시작하기 전에는 언론사와 글로벌 IT 기업에서도 일했다.

이혜영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사회 혁신가 네트워크이자 글로벌 비영리단체인 '아쇼카(Ashoka)'의 한국 법인 대표직을 맡고 있다. 그간 15명의 첫 한국 출신 '아쇼카 펠로우' 배출, 교육 혁신 생태계 구축 이니셔티브 '미래를 여는 시간' 런칭, 사회 혁신의 대중화를 위한 디지털·공간 신사업 추진 등을 이끌어왔다. 아쇼카 합류 이전에는, 북한·탈북자 인권 운동 활동가 및 동아시아 인권 단체 'BASPIA' 공동설립자로도 활동했다.

Diversitas List

- 1호 진화는 진보가 아니라 다양성의 증가입니다 _ 이정모
고정관념은 정확할수록 문제다 _ 허태균
- 2호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젠더 평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다 _ 김홍락
인공지능의 윤리학: 차별적 위계가 아닌 다양성의 알고리즘을 꿈꾸며 _ 신혜린
- 3호 다양성, 차이 그리고 차별 _ 박경태
효율적 삶의 피안(彼岸) _ 배중훈
- 4호 다양하지 않음에 질문을 던지다 _ 윤석원
인구 변동과 다양성 _ 최슬기
- 5호 과학기술은 왜 더 많은 여성을 필요로 하는가 _ 임소연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습 장면 만들기 _ 이보라
- 6호 혁신의 산실, 실리콘밸리의 기업 사례들로 살펴보는 다양성의 6하 원칙 _ 박은연
기형, 추함, 버림받음-프랑켄슈타인의 괴물 _ 노애경
- 7호 종교적 다양성에 관하여: 종교적 원관은 불변법칙인가, 가변법칙인가? _ 서명원
한국 교육에서 '다양화'의 이중적 함의 _ 전대원
- 8호 타이포그래피와 다양성 _ 유지원
한국어에 숨은 가장 일상적인 차별 _ 신지영
- 9호 다양성의 물리학 _ 김병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돌봄국가 _ 김희강
- 10호 다양성의 가치로 풀어낸 가능성 연구생태계에서 다양성이 가지는 의미 _ 노정혜
극장은 다양성의 산물 세계 극장사에서 발견한 다양성의 가치 _ 박동우
- 11호 한국 스포츠, 국가주의와 가족주의를 넘어서 _ 정윤수
성소수자의 권리 TV가 재현하는 성소수자 _ 박지훈
- 12호 있는 그대로 살아가도 괜찮은 세상을 꿈꾸며 _ 민지영
왜 탄탄대로에는 다양성이 없을까? _ 양희연
- 13호 영화의 다양성, 영화의 다양한 시선들 _ 이대현
어다어장의 장자莊子 제물론齊物論 읽기 _ 김지형
- 14호 딸들의 노래: 삶과 시간을 쫓는 흑인 여성들의 음악, 신화, 시 _ 류아정
미국법학으로의 산책 개인의 공간과 국가의 역할 _ 정인영
- 15호 고대의대 초기역사에 담긴 박애정신과 다양성 _ 이현정
죽음 후 삶이 시작된다 _ 이수현
- 16호 생활론: 재구성된 일상의 다양성 _ 조경숙
실내악, 다채로운 울림이 공존하는 음악공동체 _ 조은아
- 17호 다양성을 통해 이뤄 낸 고려의 최전성기 _ 길승수
텔레비전과 다양성: TV가 전달하는 다양한 가치들 _ 김철아
- 18호 장애의 사회·문화적 구성: 다문화 교육과 장애 _ 조주희
인간의 보편성과 다양성: 가치 확립성에 관한 진화심리학적 관점 _ 장대익
- 19호 성평등, 교실에 달다: 다양성과 예민함을 배우는 교실 꿈꾸기 _ 김수진
모두를 위한 포괄적 성교육 시작하기: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성교육 _ 황고운

다양성위원회 홈페이지에서 Diversitas PDF 버전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http://diversity.korea.ac.kr/diversity/research/booklet.do>



Diversitas

권호 20호
발행일 2022년 1월 15일
발행처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디자인·편집 사이시옷 www.saisiot.co.kr

※ 이 저술은 교육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지원 받아 발간되었음

